

원곡동 안의 리트머스, 리트머스 안의 원곡동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유승덕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을 나서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풍경하고 뭔가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중국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간판과 그 간판이 서있는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외국인들일 것이다. 2009년 현재 원곡동에는 15,000명(외국인주민 비율 40%) 정도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5만 명 정도가 실제로 원곡동에 거주한다고 한다. 게다가 주말이면 현지주민보다 많은 수의 이주민이 친구를 만나거나 각종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든다. 소위 ‘국경없는마을’이라고 명명된 이 지역을 많은 이주민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150여개의 식당을 포함해 530여개의 업소들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정도니 이곳에 가면 아시아 각국의 먹을거리와 생필품 등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이외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이주민관련 단체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주민 관련단체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계의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주민센터와 인접한 거리에 있다. 여기까지는 간략한 원곡동의 현황과 이미지를 스케치한 정도이고 이제부터 이곳에 사는 원곡동사람들의 이야기와 2007년부터 이곳에 자리 잡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고수와 두리안 향기가 배어 있는 원곡동 거리

사람들이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주요 감각기관중에 시각이나 청각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원곡동 거리를 들어서면 방문객이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시각도 청각도 아닌 후각일 것이다. 안산역에서 내려 지하도를 빠져 나오면 작은 공원과 아시아의 식당과 가게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국경없는마을’이 펼쳐진다. 이 거리를 들어서기가 무섭게 공기 중에 은밀하게 흩어져 있던 동남아시아 음식의 향료 냄새들은 이곳의 낯선 이방인(방문자)들의 후각을 자극하며 환대의 인사를 건넨다.

여러 향기 중에도 특히 고수와 두리안의 냄새는 가장 진하게 우리의 후각을 자극한다. 주로 동남아시아 음식에 약방에 감초처럼 쓰이는 고수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식재료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이 내는 독특한 향을 못견뎌한다. 도깨비방망이 모양으로 생김새부터 심상치 않은 두리안 역시 중국인들에게는 과일의 황재로 불린다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고약한 냄새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고수와 두리안만이 아니다. 몇 집 가다 한집 꼴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양꼬치구이 집에서 풍기는 양고기 굽는 냄새 역시 원곡동 공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이외에도 길거리에 늘어선 식료품과 여러 나라의 식당들에서 제공하는 이국적인 냄새는 원곡동을 가장 원곡동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들이다. 우리에게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이 냄새는 이곳을 찾는 많은 이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고향의 향기일 것이다. 이 고향의 향기를 맡기 위해 많은 이주민들이 주말만 되면 이 거리를 찾아와 하루 종일 별 소일거리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원곡동은 시각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도시의 작은 동네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외국어로 된 간판 빼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고만고만한 건물들과 길거리의 풍경까지 큰 차이가 없다. 이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까지는 전폭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차원의 냄새는 어떠한 한계도 가지지 않으며 원곡동 지역을 자신들의 나라의 그것으로 차곡차곡 채워놓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만의 정취를 원곡동에서 느끼기를 원한다면 눈과 귀는 닫고 사냥개처럼 후각에만 의존해 이 길거리를 배회해 볼 것을 권해 본다.

무한 자유지대 원곡동 만남의 광장

안산역에서 내려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로 접어드는 초입에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만남의 광장’ 혹은 ‘원곡동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이 공원은 원곡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소로 주말이면 많은 이주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특히 주말에는 이주민관련단체의 행사나 공연, 중국교포들의 출판, 종교단체들의 포교활동, 이주민들 간의 배구시합, 정치적인 색채를 띤 집회까지 이 좁은 공간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물론 이 광장은 행사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삼삼오오 쭈그리고 앉아 고향소식, 일터이야기 등 서로간의 근황이 오고가는 차차 없는 광장카페의 역할도 한다. 이 공원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의 동향은 물론 때에 따라 변천하는 원곡동의 트렌드까지 알 수가 있다. 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이 광장은 즉각적으로 활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대부분 반월,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지이기도 한 이곳도 동시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곡동 공원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주민들의 놀이 문화의 변천사도 읽을 수 있다. 리트머스가 처음 원곡동에 자리를 잡던 3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 광장의 주말 풍경은 대체적으로 유사한듯하면서도 은근한 변화들이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원곡동 만남의 광장 풍경의 변천사는 아마도 원곡동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듯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 공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교포들의 사교댄스이다. 지금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주 주말저녁이면 이 광장은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 대규모 춤판이 벌어지곤 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음악을 틀고 춤판을 벌이지만 얼마지 않아 여기저기서 몰려든 숨은 춤꾼들이 합세하며 광장은 이내 무도회장으로 바뀐다. 중국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공원이나 길거리 춤문화가 원곡동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런 문화의 이동과 접목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원곡동 지역이 점차적으로 중국교포들이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있다. 원곡동에서만큼은 이들이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이주민은 물론 한국인들까지 마치 손님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중국교포들의 춤판이 원곡동 만남의 광장의 밤의 지배자였다면 이상하게도 아시아지역 이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기호와도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한 배구경기가 낮 시간을 지배



원곡동 만남의 광장

한다. 심지어는 오래전부터 이 광장을 대상으로 준비되었던 공연도 이들의 열성적인 경기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 원곡동의 무슨 행사나 공연이 벌어지더라도 광장의 가운데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구경기가 진행되는 진풍경이 속속 연출되고 있다. 주로 중국 국적자들로 구성된 이들의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사는 아마도 반중국공산당 혹은 친중국공산당 쟁기대회 정도일 것이다. 이 행사의 규모는 이 광장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집회로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두 집단 간의 몸싸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찰관들을 긴장시키는 행사이기도 하다. 원곡동 만남의 광장을 둘러싼 자리다툼은 비단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행사가 빈번히 치러지는 공원이지만 공식적으로 이 공원의 사용권을 허락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먼저 행사용 텐트를 치는 측에 그날의 광장을 사용하는 전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배구경기를 동시에 관람해야하는 옵션이 붙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국적의 누구도 어떠한 예약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한자유지대가 바로 이 원곡동 만남의 광장이 아니겠는가.

견고 싶은 길조성에 사라져간 것들

원곡동에서 가장 이주민의 통행이 잦은 신흥길 350미터 구간에 소위 견고 싶은 길이 조성되었다. 작년도에 마무리된 12억이 들어간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정말 유감천만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곡동을 원곡동스럽게 만들던 다국어로 된 돌출 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획일적인 기획에 의해 사라져갔다. 이 길이 조성되면서 제일 먼저 정비에 들어갔던 것들이 간판들인데 조금은 혼잡스러워 보였지만 나름대로 이국적인 정서를 물씬 풍기던 간판들이 한 디자인회사에서 정한 패턴화된 간판으로 모두 싱겁게 바뀌고야 말았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곳의 간판은 단지 각기 다른 가게를 표시하기 위한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간판들은 원

곡동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그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리의 풍경은 이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무관한 낯선 그 무엇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이미지가 다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간판정비사업 이후의 원곡동의 풍경도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이곳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곳을 자주 찾는 이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 본다. 간판



간판정비사업 이전의 원곡동 ↓

정비사업 다음에 진행된 것이 가로 정비사업인데 전에 주말만 되면 노변을 가득 채우던 포장마차와 좌판들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인지 가로에는 원통형으로 된 화강석이 길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 길의 이름이 일명 ‘건고 싶은 거리’인데 이 화강석기둥과 서양의 포석을 흉내 낸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피해서 이리저리 걷다보면 절로 정비사업 이전의 옛 거리가 그리워진다.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이 가로가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바로 직전인 2008년 여름에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주관으로 진행했던 다문화사업(인터-카페)에서 1시간동안 국내작가들과 이주민이 수십 명 길거리로 나와 원곡동 풍경을 1시간 동안 카메라에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인터-뷰 인 원곡동”이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도 건고 싶은 길 조성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원곡동 거리의 풍경을 사진 이미지이긴 하지만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지금도 가끔 좀 혼잡스럽고 꼬질꼬질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곡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주민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사라져간 원곡동의 옛 이미지를 들여다보며 지금의 그것과 비교해보곤 한다. 올해 원곡동이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는데 향후 이 여파가 원곡동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려스럽기도 하다.

아시아음식 백화점 ‘오감만족 음식거리’

외지인이 원곡동을 찾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곳에 가면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네팔 음식점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점이 그다지 넓지 않은 이 국경없는마을에 밀집해 있다. 이곳의 외국음식점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주요고객으로 삼는 식당이고 다른 부류는 한국인들을 주요고객으로 보지 않고 자국민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네팔식당 칸티푸르, 파키스탄식당 파라다이스, 우즈베키스탄 식당 사마리칸트, 베트남 고향식당 등은 비교적 한국 사람의 입맛에 잘 맞는 음식들이 많고 직원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다. 하지만 원곡동에 자리 잡은 상당수의 외국식당은 자국민들이 주요고객이고 그중에 일부 식당은 한국인손님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외국식당들은 단지 식사만하는 장소를 뛰어넘어 자국민들을 만나고 정보교환을 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수이기는하지만 술 취한 한국 손님이 이주민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



네팔 커리



베트남 쌀국수

인을 꺼린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외국식당 사장님들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화 된 맛이 아니라 외국 현지식당에서 맛보는 정통외국요리를 맛보려면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식당을 가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사람의 기호에 맞지 않는 향료는 조금 줄이거나 일부 향료는 의도적으로 빼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음식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음식점이 각 나라의 음식문화를 만나 퓨전화 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원곡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곳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교포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은 북경의 음식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한국화 된 중국집의 음식 맛도 아닌 전혀 다른 맛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다문화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오감만족 음식거리’라는 원곡동 내에 다문화 음식점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곡동 음식점들만이 갖는 지금의 분위기가 자본에 의해 훼손 받지 않고 잘 간직되면서도 내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는 특화된 음식거리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종교계와 봉사단체의 국경없는 각축장 ‘원곡동’

원곡동에만 20여개의 이주민지원단체 및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특히 주말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이주민 지원활동을 펼친다. 주말에 원곡동 거리를 지나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단체들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이주민으로 가득찬 거리를 활보하는 차량, 조그만 선물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교회로 올 것을 종용하는 열렬신도들, 복음찬송을 부르며 포교활동을 하는 교회청년들, 이들이 외쳐대는 소리로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의 주말은 시작된다.

이에 뒤질세라 시민단체에서도 무료진료나 노동상담들을 해주겠다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상가에서 벌어지는 호객행위에 가까운 몸짓을 해낸다. 이들의 봉사활동이 이주민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것들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주민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인 단체나 개인들도 많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활동은 이주민들에게도 식상할뿐더러 종교적인 목적이 너무 강해서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언가를 이주민들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바라는 행동은 내국인이나 이주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 지역만 해도 다문화관련 축제나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데, 행사주최 측에서 이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이

주민들도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이들을 불쌍하게만 보는 시선들이 빚어낸 현상으로 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당연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을 위한 모든 봉사활동이나 행사가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말에만 원곡동거리에 나타나 이벤트를 벌이듯이 활동하는 단체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들의 삶을 보다 양적, 질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단체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범지대 원곡동의 누명

2007년 1월에 안산역 화장실에 토막 난 시체가 유기된 사건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터진 이 사건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이 심각한 우범지대로 낙인찍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범죄사건이 원곡동에서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서 원곡동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우범지대이고 지저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상으로도 부풀려져서 원곡동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글이 다수를 차지한다.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이주민이 많이 늘어난 이후에 원곡동에서 밤거리를 다니는 게 무섭다는 현지인의 증언이 따라붙는다. 통계나 인터뷰의 특성이 그렇듯이 누가 어떤 대상자를 취사선택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이미지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대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3년 전부터 리트머스 공간을 오고 가며 필자가 체감하는 원곡동지역의 밤거리에 대한 느낌은 어느 한국의 길거리를 다닐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원곡동지역의 범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대부분 한국인 상대의 범죄라기보다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원곡동하면 우범지역이라는 인상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인 그 중에서도 백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한몫 하는 것 같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남 아시아인이나 흑인들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무섭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원곡동은 그들에게 여전히 우범지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위에서 언급한 원곡동의 이미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유일하다. 2007년에 원곡동에 자리를 잡은 후 3년째 이곳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이 70여명 정도인 이 단체는 시각예술 기반의 작가가 다수를 이루며 그 외에 다른 장르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과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40평정도 되는 노출콘크리트의 지하공간은 미술전시, 다문화활동, 공연, 대안교육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적 특성이 강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문화축제나 행사가 많이 기획되어 2009년인 올해에도 “올라뿔파이-원곡동페스티벌”을 비롯해 다른 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클럽데이까지 굵직한 행사를 치러냈으며 현재는 “원곡동사람들(가칭)”이라는 원곡동과 관련된 책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관련 행사나 교

육프로그래밍은 리트머스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원곡동의 지역적 특색을 맞추어 기획된 몇몇 행사를 짚어가며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인터-카페’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벌어졌던 ‘인터-카페’는 ‘사이’ 또는 ‘상호’라는 뜻을 가진 Inter라는 접두어가 가진 쌍방향성의 소통과 교류에 중점을 둔 활동을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인터-카페’, ‘인터-시네마’, ‘인터-캐리커처’, ‘인터-뷰 인 원곡동’, ‘인터-파티&전시’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인터-캐리커처로 내국인 예술가와 이주민 참여자가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단순한 컨셉의 행사였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노상에서 캐리커처를 그리는 모습은 그다지 생소하지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초상화 그리기가 원곡동



인터-파티_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한복판에서 벌어졌을 때는 그 이야기가 틀려진다.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 이젤을 펼치고 10여명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이게 된다. 이 광장의 특징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5분 이내에 어디서 몰려오는지 이내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인파가 몰려든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별것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순식간에 썰물처럼 인파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모여든 인파들 중에 자원자들이 우리가 준비한 스케치북을 집어 들고 서툰 솜씨지만 자신을 그리는 작가의 얼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단순한 그림그리기가 아니라 그림그리기를 매개로 마주 앉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자연스럽게 말트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원곡동에 수많은 이주민이 있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신한테 다가서는 낯선 한국인을 상당히 경계하는 편이다. 이날 소통의 장치로 등장한 캐리커처와 만남의 광장이 주는 장소성을 등에 업고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홍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같은 관객을 불러 모으며 행사장이 들썩이게 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마지막 프로그램인 인터-파티&전시는 리트머스와 인도네시아 식당 뿔랑이를 이원으로 묶어 파티, 공연, 전시가 동시에 벌어졌으며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유럽출신의 작가들과 리트머스 사람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뒤섞여 어울리면서 원곡동스러운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축제로 끝을 맺게 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마지막 프로그램인 인터-파티&전시는 리트머스와 인도네시아 식당 뿔랑이를 이원으로 묶어 파티, 공연, 전시가 동시에 벌어졌으며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유럽출신의 작가들과 리트머스 사람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뒤섞여 어울리면서 원곡동스러운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축제로 끝을 맺게 되었다.

‘이상한 장기대회-일수불퇴’

원곡동 만남의 광장을 지나치다보면 평일에도 사람들이 여기 저기 무리를 지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중국교포들의 장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

의 365일 연중무휴로 장기를 두는 이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만남의 광장을 지날 때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만 하다가 소수자축제를 기회로 이분들을 리트머스로 끌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이름하여 ‘일수불퇴’라는 장기대회인데 장기대회치고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많다. 예술가들과 중국교포 고수분들이 대결하는 국면이라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을 터이니 이를 빌미로 한바탕 말잔치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장기대회의 실황중계는 꾸러기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수불퇴-장기대회_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재치 넘치는 두 친구들이 맡았고 해설은 현직 경기도립미술관 큐레이터가 맡아서 미술평론을 하는 방식으로 장기해설을 하였다. 장기대회가 열리는 리트머스로도 형형색색의 형광등으로 조명을 밝히고 장기대회 진행사항은 4개의 캠코더에 의해서 촬영되고 이것은 벽면에 설치한 스크린에 4채널 영상으로 투사되는 동시에 실시간 인터넷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하였다.

해프닝에 가까운 요상한 장기대회를 통해 공통된 관심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두 집단이 만나서 신나는 장기대회를 치러냈고 예상대로 중국교포분이 이 대회의 우승자가 되어 소정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장기대회가 끝난 이후 이들은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장기두기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런 해괴한 장기대회가 당장 이주민과의 정서적 거리를 줄이고 소통의 출구를 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공통체인 리트머스는 이주민지원단체가 하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을 고안하고 실험하는 일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인종과 문화가 혼재하는 원곡동과의 말걸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무국적단어 올라뽕파이’



올라뽕파이-플리마켓_만남의 광장

올라뽕파이가 뭐야? 누군가는 태국말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적불명의 단어를 태국말로 착각해서 올해 리트머스가 주관했던 다문화축제의 타이틀을 ‘올라뽕파이’라고 지었다. 사업이 이미 진행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한 개그맨이 퍼트린 아무 뜻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황한 기획팀에서 타이틀을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뜻 전달이 잘 안돼서 와전되고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원곡동의 정체성을 닮아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타이틀을 바꾸지 않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달에 원곡동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메인 행사로는 플리마켓이 있었고 그 외에도 원곡동가이드맵 제작, 공연, 이주민영화제, 미니 듀얼게임이라는 전시 등 많은 부대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의 복병은 예상치

않는 곳에서 생겼다. 메인 행사가 만남에 광장에서 열리는 날 행사장비를 들고 그곳에 도착했던 준비팀에게 아연실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행사가 열릴 예정인 광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깃발을 걸고 대규모 악단과 퍼레이드 차량이 동원된 중국공산당을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행사도중에 친공산당세력과 반공산당세력이 충돌하여 광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우리는 행사에 필요한 짐을 풀지도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들이 행사가 일찍 종료되는 바람에 예정시간을 한 시간 정도 넘기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행사는 무리 없이 추진되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야외행사에서 장소선택의 문제가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랐다. 또한 메인 행사인 플리마켓은 원래 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물건을 들고 나와 마켓을 이루도록 되어있었으나 행사 당일 날 의외로 참여 이주민의 숫자가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가방 하나만 딸랑 들고 들어오는 그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국경없는마을 한 복판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의 장소적 이점을 힘입어 많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우리가 마련한 여러 부대행사에도 동참하여 활기찬 잔치마당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



국경없는 마을 클럽데이 홍보장면_Warung Kita 앞에서

홍대 앞에만 클럽데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에도 올 10월에 클럽데이가 만들어 지고 10여개의 외국인식당들이 클럽으로 탈바꿈하여 음악공연이나 당구대회 등이 이루어졌다. 원래 이주민센터가 주관인 이 행사의 실행은 협력단체인 리트머스가 맡아서 진행했다. 처음 의도는 원곡동의 모든 외국인식당과 가게 그리고 길거리까지 공연과 이벤트가 벌어지게 하여 서울을 비롯한 외지 손님들에게 원곡동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었다.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래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정형화된 다문화축제만이 존재하던 이 지역에 새로운 축제의 유형을 만들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참여공간을 섭외할 때 되도록 밴드나 공연자들을 그 공간과 연관이 있는 이주민들로 구성하도록 유도했다. 행사 주관자가 모든 세부프로그램을 미리 세팅해서 이주민들을 단순참여자로 전략 시키지 말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연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는 식당에는 주최 측에서 공연자를 섭외하여 각 공간에 투입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그들의 공간에서 활동하던 공연자들이 투입된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흥나는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클럽데이 행사는 식당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행사는 아니었고 행사기간 동안 만남의 광장에서는 그라피티쇼, 영상쇼, 이주민영화제가 동시에 진행되어 행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올해 열렸던 원곡동 클럽데이는 어떤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닌 이 지역의 독특한 축제문화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축제문화를 걸집시켜 보여줄 수 있는 세밀한 기획과 홍보 그리고 여러 협력단체와 이주민공동체와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원곡동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도 흥대클럽데이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까?

‘가토와 그의 친구들



AFC미디어교육팀 발표회_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리트머스 공간을 꾸준히 들락거리는 이주민들 중에는 AFC(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 AFC에서 미디어교육을 하는 책임강사와 자원활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리트머스 멤버들이다 보니 이들의 리트머스 방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리트머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리트머스에서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토라는 인도네시아 친구는 특유의 친화력과 재미난 영상작품으로 리트머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아쉽게도 올 6월 그는 자신의 나라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리트머스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펙트가 지나치리만큼 많이 들어가고 유머러스한 그의 영상작품 중에 ‘소매치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의 사촌동생과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배우로 출연시켜 만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절로 자아내게 만든다. 한국말에 비교적 익숙했던 그가 직접 입력한 자막에 나타나는 철자법의 오류 자체도 우리에게 정감 넘치게 느껴진다.

그 외에도 우리의 행사 때마다 직접적인 참여자로, 때로는 자신의 나라 공연자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로, 혹은 단순참여자로 리트머스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있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민,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림을 전공한 소녀적인 취향의 감성적인 영상작업을 해오고 있는 타티야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AFC 미디어팀 친구들이 리트머스를 활력 있게 만든 원인제공자들 인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줌 서툴지만 순박하고 삶의 냄새가 묻어나는 소중한 영상들을 감상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리트머스에서 진행될 다문화관련 행사에서 아들이 주도적인 일을 맡아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원곡동 안의 리트머스, 리트머스 안의 원곡동

리트머스가 원곡동에 정착한지 3년이 되었다. 그 시간동안 리트머스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고 원곡동도 올해 다문화특구 지정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처음 이 지역을 찾았을 때 느꼈던 거리에 퍼져 있던 이국적인 냄새도 이제는 그저 김치냄새를 맡는 것처럼 익숙해졌고 거리를 가득 메운 외국인들의 모습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리트머스가 초창기에 이곳에 자리 잡을 당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원곡동은 하나의 지역 그것도 좀 신기한 볼거리가 많은 지역정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3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점에 리트머스는 자의에서건 타의에서건 원곡동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동안의 활동도 이를 증명하듯이 리트머스에서 기획되었던 많은 일들 중에 상당수가 원곡동의 지역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도 우리는 리트머스하면 원곡동하는 등식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주제나 지역성 하나에만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리트머스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지역과 연관된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곡동 안에는 리트머스가 있고, 그 리트머스 안에는 원곡동에 관한 많은 상상과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지점들이 맞물려 바삐 돌아가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라고 말했다. 와일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맥락과 좀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리트머스 예술가들이 하는 상상과 활동도 원곡동이 모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리트머스가 원곡동을 모방했다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원곡동도 리트머스를 모방하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는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경기문화 2010년 두 번째 호에 게재>